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3, pp. 35-45,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3.035

융복합 시대에 대학생의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연구

안재희[1], 박성희[2*]
[1]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초빙교수, [2]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Analysis of Compromise of Career of University Students

Jae Hee Ahn[1], Sung Hee Park[2*]
[1]Invited Professor, Division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
[2]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ach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자신의 진로를 타협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213명(남 60, 여 153)을 대상으로 개인적 배경변수(성별, 학년, 전공)와 심리적 변수(성역할정체감, 역할지향성) 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진로타협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성별, 학년, 전공에 상관없이 진로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흥미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지위, 성유형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간 차이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성유형을, 인문 및 예체능계열의 학생들은 흥미를 중시하였다. 셋째, 성역할정체감과 역할지향성에 따른 타협요인을 분석한 결과 역할지향성 유형 중 성유형과 사회적 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경력개발 및 진로교육에서 진로역할지향성의 집단 유형에 따른 차별화되고 개별화된 경력개발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진로타협, 성역할정체감, 역할지향성, 배경변수,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d by what factors university students were impacted in the compromise of career. 213 students who enrolled in 4-year universities were divided by demographic variable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followings. Firstly, the interests are the first factor and then social status and sex types followed regardless of variables. Secondly, at the based on the difference of groups science major student took the sex types as the first meanwhile, humanities and art & sports major students took the interests as the first. Lastly,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groups at the sex types and social status with role orientation. This study can provide differentiated and individualized career development strategies regarding group types of career role orientation.

Key Words : Compromise of career, Sex-role identity, Role-orientation, Demographic variables, University students

1. 서론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청년의 취업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률은 66.2%로 이는 전년 대비 1.5%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며 이중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2.6%로 2016년과 비교해 1.7% 포인트 감소하였다. 전공계열별로 보았을 때 공학계열(70.1%), 의약계열(82.8%)은 전체 취업률(66.2%)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56.0%), 사회계열(62.6%), 교육계열(63.7%), 자연계열(62.5%), 예체능계열(63.0%)은 낮게 나타났다[1]. 그리고 채창균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acho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7.(GCU-2017-0191)
*Corresponding Author : Sung Hee Park(sungheepark@gachon.ac.kr)
Received January 22, 2019 Revised February 21, 2019
Accepted March 20,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2016)이 분석한 대졸 청년의 전공일치 취업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73.8%로, 4년제 대졸 취업자의 26.2%는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고 하겠다[2].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이 한국교육고용패널 10차년도(201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2013년 대졸자의 학력별, 성별 취업선호도를 살펴보면, 남성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최소 월급으로 235.1만원을 기대하면서 '정규직 선호(70.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근무시간 불규칙 직장을 비선호(62.0%)', '통근 수월 직장을 선호(60.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4년제 대졸자의 경우는 최소 194.4만원을 기대하면서 '근무시간 불규칙 직장을 비선호(79.4%)'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통근 수월 직장을 선호(76.3%)', '주5일 근무 직장을 선호(71.5%)'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업과 실제로 획득할 수 있는 직업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이상적인 진로역할을 포기하거나 유보하고, 선호도는 낮지만 실현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는 타협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러한 타협과정은 성별, 전공계열과 같은 개인적 변수뿐만 아니라 진로역할의 지향성, 진로자기효능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타협과정을 거쳐 진로를 선택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대졸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대학 당국의 취업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학생들의 진로타협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편이다. 한편 진로타협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집단 혹은 남성집단 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어떤 진로타협과정을 거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인과 동시에 심리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진로타협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타협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전공, 학년을 선정하고 심리학적 변인으로는 성역할정체감과 역할지향성을 선정하였고 이러한 변인들에 따라 진로타협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집단으로 구분해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대학생 집단이 교육에서 취업으로 전환과정에서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하위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경기도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배경변수(성별, 전공, 학년)와 심리적 변수(성역할정체감, 역할지향성) 등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진로타협의 요인과 순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력개발 및 진로교육에서 집단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개별화된 경력개발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포부를 조절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자신이 소망하는 이상적인 진로를 현실적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유보하고 선호도는 낮지만 실현 가능한 선택들의 대안을 조정하는 진로타협 과정을 거친다. 진로타협은 진로의사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로, 자신이 가진 목표 가운데 보다 중요한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덜 중요한 요소를 포기하는 과정이다[4-6].

진로타협과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Gottfredson(1981)은 사람들이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에 대해 포부를 형성한다고 보면서 진로포부 형성과정을 제한(circumscription)과 타협(compromise)으로 설명했다[5]. Gottfredson(1981)은 제한을 자아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타협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어서 이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7].

제한은 자기개념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5]. 자기개념 발달의 첫 번째 단계는 힘과 크기 지향의 단계로 이 시기에 아동들은 힘 있는 직업을 선호하면서 직업을 갖는 것을 성인의 역할로 인식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성유형 자기개념이 형성되는 단계로,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직업들을 선호한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자기로 인식되는 사회계층과 지위에 대한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시기로, 사회적 명성 수준과 일치하는 직업들을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직업들은 제거한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심리적 자기 인내적 개념이 발달하는 단계

로, 개인의 흥미, 가치관, 성격 등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4,7].

타협은 제한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선호하는 직업 대안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직업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타협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개념에 대응되는 직업조건인 성유형(나의 성역할과 일치하는 직업조건), 사회적 명성(내가 추구하는 사회적 명성을 충족시켜 주는 직업조건), 흥미(나의 흥미, 성격과 일치하는 직업조건)를 고려한다[4]. Gottfredson(1981, 1996)은 타협과정의 네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5,8]. 첫째, 성유형, 명성, 흥미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직업대안들을 선택할 때 먼저 형성된 자기개념과 대응되는 직업조건을 우선시 한다. 즉 가장 먼저 발달한 자기개념에 대응되는 직업조건인 성유형을 나중에 발달한 자기개념에 대응되는 흥미조건보다 중요시한다. 그래서 타협시 성유형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은 끝까지 지키려하고 흥미와 일치하는 직업조건은 제일 먼저 포기한다. 둘째, 최상의 선택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협시 최상의 선택보다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역할지향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결혼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개인들은 그 역할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직업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회피한다. 회피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더 많은 직업 대안을 탐색하거나 불만스런 선택을 유지하거나 최대한 결정을 미룬다. 마지막 원칙은 타협에 대한 적응에 대한 것이다. 흥미를 타협한 사람들의 경우는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는 반면, 사회적 지위에 대해 타협한 경우에는 이보다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성유형을 타협해 자신의 성과 반대되는 직업을 선택한 경우에는 가장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어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다[4].

그동안 이루어진 진로선택의 타협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Gottfredson(1981)이 제시한 요인들의 타협의 원칙 및 우선순위를 검증하였다[5,6,9,10-15]. 하지만 일관된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개인의 배경 변수 및 심리적 원인에 따라 타협과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공학전공 대학생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 간의 진로타협과정을 연구한 Holt(1989)의 연구를 보면 두 집단 모두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11]. 하지만 통계적 상호작용의 결과 공학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선호하는 반면,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황매황(2002)은 타협의 주요 측면을 대학명성, 학과인기도, 적성일치도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한 후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및 전공 선택의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했다[16]. 연구결과, 대학명성을 추구하기 위해 적성을 타협했던 집단이 높은 학과만족도와 낮은 진로변경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사회적 지위나 학과의 사회적 인지도를 보다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도 타협의 우선순서가 달라졌다.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시 타협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한 Taylor & Pryor(1985)의 연구를 보면 전공선택시 남성은 흥미보다 명성을 더 중시했고 여성은 명성보다 흥미를 더 중시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선택하는 성유형의 범위가 더 넓었다[15]. 서울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을 연구한 이기학과 조미랑(2003)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진로타협 우선순위가 사회적 지위, 흥미, 성유형 순인 반면 여학생은 흥미, 성유형, 사회적 지위 순으로 나타났다[10]. 김미연과 방희정(2005) 연구 역시 성별에 따라 진로타협순서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사회적 명성, 흥미, 성유형 순서를 선호했지만 여학생은 성유형, 흥미, 사회적 명성 순으로 남학생에 비해 직업의 성유형을 더 우선시하였다[9].

하지만 모든 여성들이 성유형을 가장 타협하기 힘든 직업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Leung & Plake(1990)의 연구를 보면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보상으로 좀 더 비전통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성유형과 일치하는 조건을 덜 중요시하는 반면 사회적 명성을 높은 직업조건으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더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간주했다[6]. 학업 성취수준에 따라 여학생들의 진로타협과정을 분석한 Sandberg, Ehrhardt & Ince(1991)의 연구를 보면 평균정도의 성취수준을 보이는 여학생은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경우 성정형화되거나 여성 지향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반면 성취수준이 높은 여학생들은 현실적인 선택 상황에서

더욱더 남성지배적인 분야나 남성지향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17]. 이러한 연구경향은 직업 타협시 사회적 명성과 성유형 요인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지 분석한 Leung(1993)의 연구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되었는데, 그의 연구에 참여한 남녀 대학생 모두는 성유형보다 사회적 명성을 더 중요시했다[12]. 특히 직업을 개인의 선택보다는 가족중심의 의사선택 과정으로 여기는 아시아문화권에서 사회적 명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타협상황의 강도에 따라 여성의 타협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희의 연구(2006)를 보면 이상적 진로선택 상황에서는 성유형이 가장 먼저 타협되고 뒤이어 사회적 지위, 흥미 순으로 나타나 흥미가 가장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4].

성별, 전공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성역할정체감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따라 타협과정이 달라지기도 한다. Leung & Harmon(1990)은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한 다음 타협과정을 분석했다[19]. 연구결과, 자신의 성별과 상관없이 양성적인 성역할정체감을 갖고 있는 집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직업대안들의 사회적 명성 수준과 성유형의 범위가 다른 성역할정체감을 보이는 집단의 그것보다 넓었다. 한편, 여성이 가진 성역할정체감에 관해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illigan(1982)의 관계적 정체감 형성 이론을 적용해 여성의 정체감을 설명한 Crozier(1999)는 여성들이 타인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자기희생을 선으로 보는 발달단계에 있을 때 여성들은 전형적인 여성 직업을 선택한다고 주장했다[4,20,21]. 또한 관계적 자아에 기초해 정체감을 형성한 여성들은 그들의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사회형의 흥미유형을 가진 직업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2]. 여성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일과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생각해 이 둘을 연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선택한다고 제안한 Corder & Stephan(1984) 역시 여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그들이 가정과 일을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만약, 이러한 갈등이 존재할 경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더욱 여성적이고 낮은 명성을 가진 직업에 대해 포부를 형성한다고 했다[4,23]. 한편 Standberg, Ehrhardt, Ince & Meyer-Bahlburg(1991)는 그들의 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진로에 대해 현실적인 압력에 부딪히게 되면 더욱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이상적인 진로를 양보한다는 것을 밝혔다[24].

진로역할지향성 유형별로 진로타협과정을 분석한 김은희의 연구(2010) 역시 역할지향성에 따라 진로타협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제시했다[25]. 모든 역할유형에서 흥미가 가장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나타났고 진로역할무관심형, 작업자역할획득형, 만능역할지향형, 진로역할순응형, 사회적성취도전형에서는 그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 성유형 순이었다. 그러나 관계역할중시형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성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성역할고정관념의 수준에 따라 타협순서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26]. 정주리와 이기학(2007)은 그들의 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많은 대학생들이 성역할과 흥미보다 사회적 지위를 더 중요시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관성(2008)은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일치 여부 및 성역할 갈등수준에 따른 타협순서를 분석한 연구에서 남성성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 지위, 성유형, 흥미 순으로 진로타협의 우선순위가 나타난다고 밝혔다[26,27].

Super(1957)에 의하면 개인의 진로는 일생을 통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 간의 연속성 상에서의 조화를 의미한다[28]. 진로선택은 자신의 중요한 생애역할들과 분리되어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 직업세계의 변화, 경제적 여건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포함한 커다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형성된 개인의 역할지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5]. 특히, 역할지향성은 특정 생애 역할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중요성이나 가치정도이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태도를 말한다[4]. 진로선택과정은 자신이 지향하는 생애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진로의식이 가정지향적으로 발달하느냐 혹은 일지향적으로 발달하느냐는 그 사람이 처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25]. 따라서 역할지향성과 타협상황의 상호작용에 따라 타협요인들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정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일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동시에 이를 추구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남성의 역할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선이(2004)는 대학졸업 후 3년 이내의 대졸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직업의 양립에 대한 태도가 진로결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직업이 우선인 여성은 결혼 때문에 직업선택과 관련해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가정이 우선인 여성들은 모험이나 진취성이 수반되는 직업보다는 경력개발의 한계는 뚜렷하더라도 안정적이고 가정역할 수행의 병행이 용이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였다[29]. 일과 가정이 동등하게 중요한 여성들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병행을 추구하며 가정보다 직업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4].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결과들에서 진로타협의 우선순위가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Gottfredson(1981)이 제시한 직업조건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배경변수 및 심리적 변수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다[5]. 둘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중요한 생애 역할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여성에게 있어 진로결정은 그들의 미래에 충족하고 싶은 다른 생애 역할들과 관련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1,2,4]. 따라서 진로의사결정의 타협과정은 전공,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대학유형, 학년, 성역할정체감, 진로역할지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타협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기반해 개인적 변수 및 심리적 변수에 따라 대학생들의 진로타협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더불어 응답 집단 내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거나 중복응답을 한 응답지 84부를 제외한 213부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특성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Analysis of participants

Classification		PER(%)
Gender	Male	60(28.2)
	Female	153(71.8)
Type of university	Co-ed	145(68.1)
	Women	68(31.9)
Major	Humanities	34(16.0)
	Social Science	74(34.7)
	Science	36(16.9)
	Engineering	38(17.8)
	Art & Sports	31(14.6)
Grade	1 & 2	98(46.0)
	3 & 4	115(54.0)
Total		213(100.0)

3.2 측정도구

3.2.1 진로타협

타협이란 개인이 진로결정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면 현실적인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호하는 직업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행동을 지칭한다. 즉 자신이 소망하는 이상적인 진로역할을 현실적인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유보하고, 덜 선호하지만 실현 가능한 선택들의 대안을 생각하는 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타협이라 한다. 진로타협검사로 활용한 도구는 김선희(2006)가 개발한 12문항으로 성유형, 사회적 지위, 흥미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관적 문항선택 방식을 취하고 있다[4].

Table 2. Compromise of career items

Factors	Description	Characteristics
Sex types (4 items)	Preference of jos matched with person's sex-role identity	• Matching with my gender • Compatible with the role as a spouse in marriage • Compatible with the role as parents • Balanced between family and work
Social status (4 items)	Social economic status, income, and level of education	• Higher income • Higher social status • Having authority • Matching with level of my education
Interest (4 items)	Preference of job based on value and personality(Department of Labor, 1999)	• Job I like • Interesting job • Matching with my value system • Matching with my personality and preference

이 도구는 직업 조건 12개를 가지고 두 개의 직업조건을 한 쌍으로 한다. 각 문항의 직업조건 쌍은 성유형조건-명성조건 쌍, 성유형조건-흥미조건 쌍, 명성조건-흥미조건 쌍 중 하나로 구성되며 각 직업조건을 두 번만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은 제세된 직업조건 쌍 중 질문지에 제시된 진로선택 상황에서 특정 직업조건을 선택하였다. 세 가지 요인의 선호도 점수는 각 요인에 해당되는 4개의 직업조건 문항 중 쌍 비교법을 통해 선택된 직업조건 문항의 값을 1점으로 하고, 선택하지 않은 문항은 0점으로 처리해, 각 요인에서 1점의 값을 얻은 직업조건 문항들의 값을 합산하여 각 요인의 선호도 값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각 요인의 선호도 점수의 최대값는 8점이며, 최저점수는 4점이다[4].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20으로 나타났다.

3.2.2 성역할정체감

성역할정체감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생물학적 성에 적합한 것으로 고려되는 성격특성, 행동양식 및 가치에 비추어 개인이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특성 혹은 여성적인 성격 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의 정도를 나타낸다[30]. 성역할은 사회집단이 한 개인에게 그 개인의 성에 따라 전형적인 행동유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성은 여성에게 적합한 사고, 태도, 행동양식을, 남성은 남성의 역할에 적합한 사고, 태도, 행동양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됨을 뜻한다. 따라서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개인의 진로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학생의 진로결정에서 전통적 진로선택과 비전통적 진로선택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진경(1990)이 제작한 한국형 성역할검사도구(Korean Sex Role Inventory)를 활용했다[31].

Table 3. Composition of sex-role survey items

Factors	Survey item numbers
Masculinity (20 items)	1,3,5,7,9,11,13,15,17,19,21,23,25,27,29,31,33,35,37,39
Feminity (20 items)	2,4,6,8,10,12,14,16,18,20,22,24,26,28,30,32,34,36,38,40

이 도구는 양성성 이론에 입각해 우리나라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총 60개 문항의 7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성 문항 20문항을 제외하고 남성성 20문항, 여성성 20문항만을 갖고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을 알아볼 수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 요인은 문항구성이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미분화된 사람들은 남성성향과 여성성향이 모두 약한 집단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어느 한쪽으로도 긍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해 성역할정체감이 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4에 제시되어 있듯이 Spencer et al(1975)이 고안한 중앙치분리법(median split procedure)을 활용해 전체 응답자 집단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들의 중앙치를 준거로 하여 각 개인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이보다 높은가, 낮은가 만을 가려서 응답자들을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groups based on median

Factors		Scores of feminity	
		above median	below median
Scores of masculinity	Above median	Both	Masculinity
	Below median	Feminity	Undifferentiation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집단별 빈도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Frequency of sex-role identity

Factors	F	PER(%)
Both	67	31.5
Masculinity	41	19.2
Feminity	40	18.8
Undifferentiation	65	30.5
Total	213	100.0

3.2.3 역할지향성

본 연구에서는 김선희(2006)가 개발한 여성의 역할지향성척도 32개 문항을 활용했다[4]. 역할지향성의 하위척도는 배우자역할지향척도(10문항), 작업자역할지향척도(11문항), 부모역할지향척도(11문항)이다. 하지만 김선희(2006)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배우자역할지향 요인과 부모역할지향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배우자역할지향과 부모역할지향을 합쳐 가정지향요인으로 명명해 사용했다[4].

Table 6. Compositions of role orientation survey items

Orientation	Roles
Family-oriented	Spouse's role (10 items)
	Parents' role (11 items)
Work-oriented	Worker's role (11 items)

이 척도의 채점방식은 Spencer et al.(1975)이 고안한 중앙치분리법(median split procedure)을 활용했다. 대학생의 진로역할지향성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진로역할지향성의 하위변수 가정지향성과 작업지향성 각각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집단으로 구분했다. 가정지향성과 작업지향성 두 개의 영역에서 모두 중위값 보다 높은 집단을 만능역할지향형으로 명명했고 가정지향성보다 작업지향성이 높은 집단을 작업자역할지향형으로, 작업지향성보다 가정지향성이 높은 집단을 관계역할지향성으로, 그리고 가정지향과 작업지향성이 모두 낮은 집단을 역할미설정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군집별 빈도를 보면 Table 7과 같다.

Table 7. Frequency of groups' role orientation

Factors	F	PER(%)
Work-high & family-high	59	27.7
Work-high & family-low	47	22.1
Work-low & family-high	53	24.9
Work-low & family-low	54	25.4
Total	213	100.0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와 함께 T-test와 ANOVA 및 사후분석을 통한 그룹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협요인 분석

우선 전체 응답자 213명의 타협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Table 8과 같다. 각 요인별 평균을 보면 흥미가 6.15, 사회적 지위가 3.62, 성유형이 2.23으로 응답자들은 흥미를 가장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8.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ompromise

Factor	M	SD
Sex type	2.23	1.98
Interest	6.15	1.52
Social status	3.62	1.96

4.2 배경변인별 타협요인 분석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타협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9에 나타나 있듯이 성별에 상관없이 흥미>사회적 지위>성유형 순으로 흥미를 가장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Table 9. Frequency of compromise based on gender

Factor	Gender	N	M	SD	t
Sex type	M	60	2.32	1.97	.40
	F	153	2.20	1.99	
Interest	M	60	6.40	1.43	1.48
	F	153	6.06	1.55	
Social status	M	60	3.28	2.13	-1.56
	F	153	3.75	1.87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타협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과 상관없이 흥미>사회적 지위>성유형 순이며 가장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흥미를 제시했다. 1-2학년은 3-4학년 학생들보다 사회적 지위와 성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더 높았고 3-4학년 학생들은 1-2학년 학생들보다 흥미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에 따른 직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Table 10. Analysis of compromise based on grade

	Grade	N	M	SD	t
Sex type	1-2	98	2.32	1.94	.59
	3-4	115	2.16	2.02	
Interest	1-2	98	6.02	1.59	-1.19
	3-4	115	6.27	1.45	
Social status	1-2	98	3.66	1.94	.33
	3-4	115	3.57	1.98	

대학생의 전공별 진로타협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흥미를 가장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간주하였으며, 전공유형별로 성유형과 흥미의 선호도에서 유의도수준 p<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11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별 진로타협 점수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자연계열 학생들은 다른 전공보다 성유형을 상대적으로 중시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 학생들과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다른 전공생들에 비해 흥미유형을 상대적으로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간주했는데,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했다.

Table 11. Analysis of compromise based on majors

Factor		N	M	SD	F
Sex type	Humanities(a)	34	2.15	2.08	4.88** c> b, e
	Social Science(b)	74	1.81	1.83	
	Science(c)	36	3.44	1.81	
	Engineering(d)	38	2.29	2.22	
	Art & Sports(e)	31	1.84	1.57	
	Total	213	2.23	1.98	
Interest	Humanities(a)	34	6.50	1.40	3.64** a, e> c
	Social Science(b)	74	6.27	1.55	
	Science(c)	36	5.33	1.53	
	Engineering(d)	38	6.16	1.59	
	Art & Sports(e)	31	6.45	1.21	
	Total	213	6.15	1.52	
Social status	Humanities	34	3.35	2.23	.99
	Social Science	74	3.92	1.85	
	Science	36	3.22	1.99	
	Engineering	38	3.55	2.01	
	Art & Sports	31	3.71	1.77	
	Total	213	3.62	1.96	

** *P*<.01

4.3 성역할정체감과 역할지향성 유형별 타협요인 분석

4.3.1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타협요인 차이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진로타협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12와 같다.

Table 12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집단보다 여성성이 강한 집단이 성유형을, 양성성을 보이는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흥미를, 남성성이 강한 집단이 사회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Table 12. Analysis of compromise based on the types of sex-role identity

Factor		N	M	SD	F
Sex type	Both	67	2.01	2.00	1.32
	Masculinity	41	1.93	1.93	
	Feminity	40	2.65	2.24	
	Undifferentiation	65	2.38	1.80	
	Total	213	2.23	1.98	
Interest	Both	67	6.36	1.37	.70
	Masculinity	41	6.15	1.84	
	Feminity	40	5.95	1.26	
	Undifferentiation	65	6.08	1.60	
	Total	213	6.15	1.52	
Social status	Both	67	3.63	1.70	.54
	Masculinity	41	3.93	2.14	
	Feminity	40	3.40	2.15	
	Undifferentiation	65	3.54	1.98	
	Total	213	3.62	1.96	

4.3.2 역할지향성 유형별 타협요인 차이

진로선택과정은 자신이 지향하는 생애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학생의 역할지향성 유형별 진로타협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유형과 상관없이 흥미를 가장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간주하였지만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성유형과 사회적 지위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유의도 수준 p< .001).

역할지향성에 따른 진로타협 점수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자신이 지향하는 생애역할에서 관계역할을 중시하는 집단(c)은 사회적 지위보다는 성유형을 상대적으로 타협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보다는 일을 중시하는 작업자역할 집단(b)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작업자로서의 역할(b)을 중시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관계역할을 중시하는 집단(c)과 일과 가정을 모두 중시하는 만능역할지향 집단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able 13. Analysis of compromise based on the role orientation

Factor		N	M	SD	F
Sex type	Work-high & family-high(a)	59	2.46	1.88	19.53*** c > b
	Work-high & family-low(b)	47	1.00	1.22	
	Work-low & family-high(c)	53	3.57	2.22	
	Work-low & family-low(d)	54	1.74	1.49	
	Total	213	2.23	1.98	
interest	Work-high & family-high	59	5.98	1.62	.94
	Work-high & family-low	47	6.38	1.26	
	Work-low & family-high	53	6.00	1.48	
	Work-low & family-low	54	6.30	1.64	
	Total	213	6.15	1.52	
Social status	Work-high & family-high(a)	59	3.56	1.85	13.05*** b > c
	Work-high & family-low(b)	47	4.62	1.55	
	Work-low & family-high(c)	53	2.43	2.04	
	Work-low & family-low(d)	54	3.96	1.72	
	Total	213	3.62	1.96	

*** $P<.001$

5. 요약 및 제언

5.1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 타협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배경변인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흥미를 가장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이었으며, 사회적 지위, 성유형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대학생들은 성유형 요인을 가장 먼저 타협하고 흥미를 가장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간주하면서 진로선택 시 일차적으로 가장 우선시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4,10,13,14,18,25]. 따라서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자신의 흥미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 제공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응답자의 성별, 학년에 따른 타협 선호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공에 따른 성유형과 흥미의 타협 선호도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자연계열 학생들이 다른 전공보다 성유형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였으며,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다른 전공생들에 비해 흥미유형을 상대적으로 더 우선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계열 응답자들이 성유형을 타협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간주한 것은 이 계열에 속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성역할정체성 미분화집단과 여성성 특성을 보이는 집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Table 12에서 알 수 있듯이 성유형을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간주하는 집단이 성역할정체성에서 여성성과 미분화 특성을 보이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응답자의 성역할정체감과 역할지향성에 따른 타협요인을 분석한 결과 타협 선호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역할지향성 유형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유형과 사회적 지위에서 역할지향성 유형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관계역할을 중요시하는 집단이 성유형을 상대적으로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25]와 유사한 결과로, 관계역할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타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배우자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작업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사회적 지위를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사회적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위, 명성 등의 요인을 중시한다고 하겠다.

5.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생들을 진로지도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학생은 성유형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자신의 흥미와 맞는지의 여부를 진로선택 시 가장 타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흥미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기회가 1학년부터 전공별, 단과대학차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직업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학 인턴십 등을 비롯해 대학교 1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이 무엇에 흥미를 보이는지를 탐색하는 기회가 취업준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32].

둘째, 전공, 역할지향성,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진로선

택 시 고려하는 요소들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학과나 대학측에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대학생 집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즉 전공 교수, 관련 산업체 관계자, 대학의 경력개발 관계자들이 협력해 전공별,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33,34].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Bandura(1986)가 언급했듯이 개인은 진로행동을 관리하는 능력과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진로를 결정해 나간다[25]. 한 개인이 어떤 진로영역에 강한 흥미를 느끼지만 그 진로영역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배경과 환경 변인 등에 따른 개인차와 환경에서 학습된 경험의 영향 때문이다[25].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대학생들의 진로역할지향성과 진로타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진로타협을 연구하기 위해 가상적인 직업조건 선택방식을 활용했다. 이 방식은 세 변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인식 수준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응답자가 왜 특정 직업을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이유를 정교하게 분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식수준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생 일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직업군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타협의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 *2017 Employment Statistics for Graduat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723270

[2] C. K. Chae. (2016). Analysis of Statistics on College Graduates Finding Major-related Jobs. *KRIVET Issue Brief, 91,* 1-4.

[3]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Higher education·employment statistics.*

[4] S. H. Kim. (2006). *Role Orientation and Compromising Situations in Women's Career Choice: Effects on the Preference for Compromising Factors*.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5] L. S. Gottfredson.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6] S. A. Leun & B. S. Plake. (1990). A Choice Dilemma Approach for Examin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x Type and Prestige Preferences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4),* 399-406.

[7] L. S. Gottfredson. (2002).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Compromise, and Self-Creatio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 85-148.

[8] L. S. Gottfredson.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Brown. D., Brooks, L.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 Bass.

[9] M. Y. Kim & H. J. Bang. (2005). Gender and Birth Order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Level of Career Compromis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0(2),* 173-188.

[10] K. H. Lee & M. R. Cho. (2003).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Level of Career Compromise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8(3),* 1-12.

[11] P. A. Holt. (1989). Differential Effect of Status and Interest in the Process of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1),* 42-47.

[12] S. A. Leung. (1993).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Replication Study with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88-193.

[13] B. Hesketh, S. Elmslie & W. Kaldor. (1990). Career Compromise: An Alternative Account to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49-56.

[14] C. A. Blanchard & J. W. Lichtenberg. (2003).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A Test of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2),* 250-271.

[15] N. B. Taylor & R. G. Pryor. (1985). Exploring the Process of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2),* 171-190.

[16] M. H. Hwang. (2002). *The Compromise Process in Decision Making of Postsecondary Education in Korea.* Doctoral Disso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7] D. E. Sandberg. A. A. Ehrhardt, S. E. Ince & H. F. Meyer-Bahlburg. (1991).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and Adolescents' Career Aspirations: A Follow-up Stud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3),* 371-386.

[18] J. H. Kim. (2009), *The Difference of Compromise Process According to Various Situations in Making Career Decision*. Ph. D Dissertations, Seoul University.

[19] S. A. Leung & L. W. Harmon. (1990). Individual and Sex Differences in the 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2),* 153-159.

[20] C. Gilligan.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ss.: Harvard.

[21] S. D. Crozier. (1999).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a "Relational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1(3),* 231-247

[22] L. Forrest & N. Mikolaitis. (1986). The Relational Component of Identity: An Expansion of Career Development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2),* 76-88.

[23] J. Corder & C. W. Stephan. (1984). Females' Combination of Work and Family Roles: Adolescents' Aspi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2),* 391-402.

[24] D. E. Sandberg, A. A. Ehrhardt, S. E. Ince, & H. F. Meyer-Bahlburg. (1991).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and Adolescents' Career Aspirations: A Follow-up stud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3),* 371-386.

[25] E. H. Kim & B. W. Kim. (2010).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Career Barriers and Compromise Process by Career Role Orient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4),* 1451-1468.

[26] J. R. Joeng & K. H. Lee. (2007). The Differences of Preference in the Career Compromise Processes Depending on Gender and Sex-role Stereotyp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2),* 161-174.

[27] K. S. Park. (2008). *Korean Male College Students' Gender Roles and Career Compromise*.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8] D. E. Super.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 Harper & Brothers. (Vol. 195).

[29] S. Y. Lee. (2004). Career Awareness of Highly Educationed Women at the Stage of Job Implementation Phases.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4*. 6, 571-573.

[30] S. L. Bem & S. A. Lewis.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4),* 634-643.

[31] J. K. Chung. (1990). 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5(1),* 82-92.

[32] K. I. Khoe, S. H. Hong & W. S. Sul. (2018). Study on improvement policy through diagnosis and analysis of success cases of industry-academy internship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5),* 205-210.

[33] J. H. Ahn & S. H. Park. (2016).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Competencies based on Gender, Grade, and Fields of Major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age of Convergenc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4(8),* 69-80.

[34] W. J. Jang.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on the Career Compromise : Focused on the Moderate Effect on the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9(11),* 325-331.

안 재 희(Ahn, Jae Hee) [정회원]

- 199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사회학(문학석사)
- 2005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사회학(철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교육-노동시장으로 전환, 고등교육정책, 교육평등, 학생문화
- E-Mail : pomp94@naver.com

박 성 희(Park, Sung Hee) [정회원]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문학사)
- 199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문학석사)
- 2006년 8월 : 미국 퍼듀대학교 교육공학(철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 관심분야 :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학습, 고등교육
- E-Mail : sungheepark@gachon.ac.kr